

2021학년도 수능완성 수록 문학 작품

영역	작가	작품	쪽
고전산문	이규보	청강사자현부전	
고전산문	이항복	유연전	
고전산문	작자 미상	장경전	2
고전산문	작자 미상	삼사횡입황천기	
고전산문	작자 미상	최고운전	6
고전산문	작자 미상	방한림전	
고전시가	박인로	누항사	14
고전시가	안도환	만언사답	
고전시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27
고전시가	작자 미상	춘면곡	29
고전시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33
고전시가	정학유	농가월령가	34
고전시가	최현	명월음	38
극문학	김상열	애니깽	
극문학	유치진	한강은 흐른다	
극문학	이은성	집념	39
극문학	함세덕	무의도 기행	41
수필	김훈	나이테와 자전거	
수필	박두진	가을 나무	
현대소설	김동리	무녀도	
현대소설	문순태	말하는 징 소리	
현대소설	박영준	모범 경작생	
현대소설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현대소설	전광용	사수	
현대소설	최일남	장 씨의 수업	
현대시	김소월	산 위에	
현대시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42
현대시	문병란	꽃씨	44
현대시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현대시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46
현대시	이용악	그리움	47
현대시	이형기	숨바꼭질	
현대시	정한모	가을에	
현대시	천양희	길을 찾아서 4 - 명암리 길	
현대시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이 배를 타고 황하로 들어가니, 백이해 승상 오심을 듣고 마중 나와 맞아 영중(營中)에 들어가 국가사(國家事) 가이없음을 아뢰거늘, 승상이 탄식 왈,

“내 이리 옴은 폐제를 회복코져 하여 남방 각진을 돌아 운남(雲南)으로 왔으니, 그대도 아무날 배를 출발하여 운남 절도사 신사덕과 합세하라.”

하시니, 백이해 허락하거늘, 승상 왈,

[A] “이리이리하라.”

하고 떠나려 하니, 백이해 왈,

“승상이 이제 어디로 행하시나이까.”

답 왈,

“나는 황토에 들어가 폐제를 뵈옵고 날을 기다려 떠나려 하노라.”

백이해 왈,

“육로(陸路)로 가시면 길이 험악하오니, 수로(水路)로 가시게 하옵소서.”

하고, 사공에 분부하여 빠른 배를 선창에 대라 하고 승상을 모시고 선창에 나아가니 동남풍이 일어나거늘, 백이해 왈,

“승상의 충성을 하늘이 알아서 때 없는 동남풍이 부오니, 폐제를 수이 뵈오리다.”

하직하고 돌아와 각처 배들을 단단히 경계하더라.

승상이 배를 타고 삼일 만에 황토에 득달하니, 사공이 여쭙우되,

“수로(水路) 사천 리를 삼 일만에 득달하오니 가장 괴이하여이다.”

승상이 속으로 크게 기뻐 사공을 보내고 폐제의 유배된 곳에 들어가니, 가시로 성을 쌓고 있는지라. 승상이 관을 벗고 사립문 밖에 엎디어 통곡하니, 폐제 들으시고 크게 놀라 신하를 보내어 물으시니 아뢰되,

“전(前) 승상 장경이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폐제 내달아 승상을 붙들고 통곡하시니, 승상이 위로 왈,

“폐하 이렇듯 하심은 다 신의 죄오니, 무슨 면목으로 뵈오리까마는 죄를 무릅쓰고 명령을 기다리오니, 폐하는 옥류(玉淚)를 거두소서.”

폐제 울음을 그치시고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 왈,

[B] “내 덕이 밝지 못하여 그대를 귀양 보내고 이 옥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닦하리오. 경은 안심하라.”

하시고, 처소에 들어가 건성(建成)이 모반하던 말씀을 이르며 물은즉, 승상이 도망한다 하매 다행하여 혹 찾아올까 고대하던 말씀을 차례로 하시니, 승상 또한 악명(惡名)을 씻지 못하고 천명을 기다리더니, 한 꿈을 얻어 도주하여 청운산 승당(僧堂)에 가 애첩 초운을 만나던 말과 남방 각진을 두루 돌아 약속한 말씀을 차례로 아뢰니라.

(중략)

승상이 폐제를 모시고 남성문에 올라 청룡기(靑龍旗)를 두르니, 좌선봉 양철이 십만 정병을 거느리고 동성문을 쳐 백이해를 맞아들이고 백호기(白虎旗)를 두르니 우선봉 신담이 팔만 정병을 거느려 서성문을 쳐 유지엄을 맞아들이니, 삼대진(三大陣)이 합세하여 궁성을 둘러싸고 치니 대장 추통이 군병 대세를 당치 못하여 죽도록 막더니, 선봉장 양철이 말을 몰아 추통과 접전하여 이십여 합에 승부를 결단치

못하더니, 추독장 마맹덕이 말 위에서 보다가 크게 소리하고 달려들어 일합에 추통의 머리를 베어 선봉 깃대에 달고 좌 추우돌하니, 건성이 추통의 죽음을 보고 크게 놀라 신하들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달아나거늘, 승상이 북을 울리며 기를 돌려 좌우 군병을 재촉하여 급히 따르니, 건성이 후군(後軍) 급함을 보고 유성장 한원과 도총독 배옹으로 뒤를 막으라 하고 단더니, 선봉장 양철이 군사를 재촉하여 쫓아가며 후군을 치니 한원 등이 선봉을 막거늘, 양철이 달려들어 한원을 베고 우선봉 신담은 배옹을 베고 급히 쳐들어가니, 건성군이 힘이 다하매, 중서랑 추원에게 명하여 옥새를 봉하여 드리거늘, 양철이 마상에서 칼 끝에 받아 들고 크게 외쳐 왈,

“반적 건성은 하늘로 오르며 땅으로 들다. 어디로 가리요.”

하며 칼을 빼어 들고 달려들거늘, 승상이 급히 말려 왈,

“건성의 죄는 죽음직하나 선제(先帝)의 혈육이라. 양원수는 진정하라.”

하시니, 양철이 건성의 용포(龍袍)와 금관(金冠)을 벗기고 따르던 신하들을 다 결박하여 앞에 세우고 폐제를 모시고 이날 환궁하사 승전고를 울리며 황극전(皇極殿)에 나와 앉으시니, 제장 군졸이 만세를 부르며 역모에 가담한 신하들을 차례로 항복받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비군을 잡아내어 능지처참하고 건성의 황비(皇妃)를 백파강 가에 내치니, 건성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천수산에 들어가 주려 죽으리라. 승상이 폐제를 받들어 종사에 나아가, 다시 천자사직(天子社稷)을 받드신 후에 천하가 태평하더라.

이적에 폐제 섬기던 신하들이 산중에 숨었더니, 기벌을 들고 모두 들어와 천자를 섬기는지라.

[C] 승상이 남북방 군사를 위로하여 보낸 후에 천자께서 큰 연회를 벌여 잔치하실새, 상이 친히 잔을 들어 승상께 전하시고 명령 왈,

“짐이 경등(卿等)으로 더불어 오늘날 즐겁은 다 승상의 덕이라. 어찌 그 은혜를 모르리오.”

하시고, 이날 장경을 연왕으로 봉하시고 곧 유지를 내리우시니, 승상이 사은(謝恩)하시고 돌아오니 연국(燕國) 신하들이 잇달아 위의를(威儀)를 차려 왔는지라.

- 작자 미상, 「장경전」 -

- 32 위 글의 내용을 한자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경이 황토로 찾아간 것은 유배된 폐제에게 면중복배(面從腹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장경이 폐제를 위해 군사를 모은 것은 신하로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폐제와 장경이 건성에게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권토중래(捲土重來)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④ 폐제가 장경을 붙들고 통곡한 것은 폐제의 절치부심(切齒腐心)했던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폐제가 복위되고 건성이 쫓겨나는 것이 장경의 입장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33. [A] ~ [C]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계획은 [B]의 대화 내용에 포함된다.
- ② [B]의 '폐제'는 [A]의 대화를 이미 알고 있다.
- ③ [B]의 인물 관계는 [C]에서 극적으로 역전된다.
- ④ [C]는 [A]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 ⑤ [B]의 대화에 담긴 거짓은 [C]에서 반어적으로 폭로된다.

34. [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빠른 진행을 통해 장면의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어.
- ②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통해 중심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어.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 ④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어.
- ⑤ 다양한 일화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어.

35. 위 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유충렬전」의 주요 장면

- 유심과 부인 장씨는 지성을 드리고 아들 충렬을 얻는다.
- 정한담, 최일귀 등이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그의 가족마저 살해하려 하나, 천우신조로 충렬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 충렬의 장인 강희주는 정한담을 규탄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백룡사의 노승을 만나 무술과 병법을 배운다.
- 남적과 북적이 명나라에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합세하여 천자를 공격한다.
- 충렬은 홀로 반란군을 제압하여 황실 가족을 구출하고 정한담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잡혀간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를 구한다.
- 충렬은 이별하였던 부모와 아내를 다시 만나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 ①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어려움에 처한 황제를 돕는 이상적인 충신의 역할이 드러나 있다.
- ③ 대립적 인물군의 갈등과 해소 과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상층 지배층의 세계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인들에게 쫓겨 강제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던 케냐의 마사이 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원래 살던 곳의 지명을 그대로 붙였다. 이와 비슷하게 유럽인들 역시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유럽의 지명들을 붙였다. 그들은 왜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였을까? 그것은 '공간'을 '장소'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머릿속에서 기하학적으로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공간은 인간이 활동하는 배경으로만 여겨지거나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각각의 공간들은 다른 공간들과 구별되는 자연적·인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으로 ㉡구성된 곳을 장소라고 한다. 공간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면,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즉 장소는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곳이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이를 해석하며, 의미를 ㉢분여한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이 인간의 감정이 이입된 상징적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가로수 길이 그곳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공간'이지만,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장소는 그곳의 실제적인 쓰임새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신들의 장소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힘에 ㉣대항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또 어떤 장소를 동경하거나 향수병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충만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곳이 바로 장소라는 것이다.

이렇게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안정감을 주고 정체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장소를 경험하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는 탓에 ㉥물장소성(沒場所性)이 확산되고 있다. 즉 장소가 지닌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징적인 장소들을 훼손하는 현상과 규격화된 경관 만들기 현상이 그것인데 이런 물장소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물장소성은 결국 뿌리를 잘라내고,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구체적 장소를 개념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36. 마사이 족과 유럽인들이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②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 ③ 새로운 곳에 대한 낯섬을 덜기 위해서이다.
- ④ 새로 정착한 곳에서 빨리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 ⑤ 자신들을 쫓아낸 이들에게 저항감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4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성숙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② ㉠, ㉡은 모두 자족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③ ㉠은 단절의 이미지가, ㉡은 소통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④ ㉠은 고독의 이미지가, ㉡은 고립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⑤ ㉠은 상생의 이미지가, ㉡은 공존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인이 문 왈,
 “네 나이 몇이나 하며, 또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네 부모는 어떠한 사람이뇨.”
 문거늘, 장경이 답 왈,
 “연은 십삼 세요, 이름은 장경이로소이다. **아버이를 난중에 잃고 어찌할 줄 모르고 두루 다니며 빌어먹삽네다.**”
 주인이 자탄 왈,
 “나의 자식과 연갑이로다. 한가지로 다니며 **불 사환**이나 하라.”
 하거늘, 장경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더라.
 그 주인은 그 고을 **관비** 차영이라. 세간이 요부하매* 장경을 달래어 제 자식의 구실을 시키고, 제 자식은 행신코자 하여 장경을 집에 두고 부려 보니 영민하거늘, 관가의 대임소지로 정하니, 관가에서 장경을 부려 보니 영민하거늘, 그날부터 **방자 구실**을 하되 수청을 잘하니 사람마다 칭찬하더라.
 각설이라. 차영이 무상하여 장경의 머리도 아니 빗기고 옷도 아니 하여 주니, **의상이 남투한 중에 머리에 이는 무수하고 몸에는 더러운 내가 나니**, 동무 방자들이며 관속배가 곁에 오지 못하게 하니, 독부 되어 그 정상이 차마 보지 못할러라. 그러하기로 혹 마루 밑에도 자고 부엌에서도 자며 어미를 부르다가 날이 새면 방자 구실을 하여 지내더니, 일일은 저 입고 온 옷이 헤어져 옷깃만 남았으니, 부모를 생각하고 슬피 울다가 옷을 벗어 이를 잡노라 혼술기를 떼어 보니 하였되,
 “여남 복촌 설화동 처사 장취의 자 경(景)이요, 자는 각(珏)이라. 기사년 십이월 이십육일 해시생이라.”
 하였거늘, 장경이 그 글을 보고 부친 유서와 필적을 보고 통곡하다가 모친 지환과 유서를 한데 간수하고 매일 슬퍼하더라.
 그 고을에 초운이라 하는 기생이 있되 나이 십삼 세라. 남방 제육에 유명하더니, 초운이 매일 장경을 여여뻐 여겨 관가 제반도 얻어 주며, 머리에 이도 잡아 주며 배고파하면 제 밥을 갖다가 주며, 따뜻한 음식을 얻어도 저는 아니 먹고 가져다가 먹고, **장경 곧 울면 저도 우니** 보는 사람이 아니 괴이히 여길 이 없더라.
 이러구러 초운이 나이 십칠 세라. 옥안운빈(玉顔雲鬢)이며 설부화용(雪膚花容)*은 남방에 유명한지라. 사람마다 천금을 싣고 취코자 하되, 초운의 마음이 철석같아서 몸을 허하지 아니하고 ㉠ **매일 장경만 잊지 못하니**, 제 부모 초운을 불러 이르되,
 “우리 너를 낳아 괴로이 길러 나이 이제 장성하였으니 천금을 받아 우리 주립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네 부모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느냐.”
 초운이 대 왈,
 “내 몸이 비록 천하나 천금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기를 내 또한 고집하니 거스르지 마옵소서.”
 하니,
 “네 마음이 그러하면 재상의 첩이 되고자 하느냐, 절도사의 부실이 되고자 하느냐, **명사를 좃고자 하느냐**, 수재를 섬기고자 하느냐.”
 초운이 대 왈,
 “만약 진 시절에 동산수재하던 사안석 같으면 가히 재상의 총첩이 될 것이요, 삼국 시절에 사인오국하던 주공 곧 같으면 가히 절도사의 부실이 될 것이요, 한무제 시절에 봉황곡 타던

사마상여 같으면 가히 부실이 될 것이요. 이제 늙은 천하에 어찌 그런 사람이 있어 섬기리까. 장경은 비록 인물은 남루하나 형산백옥이 진토에 묻혔으되, 때를 만나지 못하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나 불구에 대장군 인검을 잡을 사람이니, 천금은 쉬우나 이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아니하오니, 부모는 초운의 군은 절개를 훼손 말으소서.”
 하니, 부모 천금을 못 얻고 마음에 애연하여 장경을 원망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 장경은 소 목사를 따라 황성으로 가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오른다. 원수가 되어 남이적을 멸하고 황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초운과 다시 만난다.

원수가 초운을 보며 전일을 생각하고 슬픔이 간절하나 잠깐 참고 문 왈,
 “네 이름이 남방에 유명하매, 한 번 보고자 하여 부른즉, 무슨 병이관테 즉시 아니 오느냐.”
 초운이 여쭙오되,
 “소인의 병은 누년이 지나되 백약이 무효하오니 민망하여이다.”
 원수 왈,
 “온갖 병이 다 각각 근본이 있는지라. 너는 무슨 근본이 있느냐.”
 초운이 여쭙오되,
 “황궁하오나 근본을 묻자오니 실상을 아뢰나이다. 과연 이 골에 장수재라 하는 사람과 언약이 중하옵더니, 전관 소목사가 데려갔삽기로 이별 삼 년에 자연 병이 되었나이다.”
 원수 왈,
 “그는 거짓말이로다. 소 목사는 나와 일가라. 내 항상 그 택에 다니되 장수재라 함은 금시초문이로다. 연즉 다른 사람을 인연함이라.”
 초운이 대 왈,
 “어찌 그러하리이까. 원정에 가다가 죽었삽거나 혹 중로에서 버리고 가옵거나 하였나이다.”
 [A] 하며 눈물을 흘리거늘, 원수 속이지 못하여 눈물을 뿌리고 왈,
 “네 병이 즉시 나을 약이 내게 있노라.”
 하며 월귀탄을 주시거늘, 초운이 받아 보니 장수재가 이별할 때 드린 것이라. 비록 백 년인들 어찌 모르리오.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생각하되,
 ‘원수가 소 목사의 일가라 하니, 분명 장수재의 서간을 가져왔거나 불연즉 나를 취코자 앓아 옵이라.’
 하더니, 원수 초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운량은 나를 모르느냐. 자세히 보아라.”
 초운이 아뢰되,
 “소인은 하방천기라, 존명을 어찌 알리이까.”
 원수 왈,
 “운량 낭랑아, 칠 년 방자 구실하던 장경을 모르느냐.”
 초운이 이 말을 듣고 꿈인 듯 생신 듯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원수의 소매를 잡고 기절하거늘, 원수 손을 잡고 왈,
 “운량아, 진정하라. 이제는 네 병이 즉시 나으리라.”
 하고 못내 반기거늘, 초운이 겨우 인사를 차려 품을 열고 사운시를 드리거늘 받아 보니 당시 이별시라. 원수 마음이 비창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더라. 초운이 울며 왈,
 “소첩이 잔명을 보전하여 살았다가 오늘날 대원수 행차와 찾오심을 어찌 뜻하오리까.”
 하고 못내 즐기거늘, 원수 소 왈,
 “내 너를 그리던 정곡이야 어이 다 측량하리오.”
 하시니, 일읍 인민이 그제야 장경인 줄 알고 못내 반겨 차례로 문

3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사건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행동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32. <보기>는 수업 중 제시된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문의 식, 조상의 명예 등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인 ‘황 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보자.

- ① 황 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약장사의 조력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가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황 진사가 과부 중매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조상의 명예에 함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군.
- ③ 황 진사가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황 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감개하며 자랑하는 것은, 그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황 진사가 순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가 양반의 체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 진사는 숙모가 말한 규수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숙부가 권해 준 규수를 부인으로 맞을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기대와 다른 황 진사의 말을 접한 ‘나’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진술하게 제시하고 있다.

[34~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해 가을에 천하의 선비들을 모아 과거 시험을 보였는데, 모여든 선비의 수가 8만 5천 8백 명에 이르렀다. 최치원도 과거에 참가했는데 장원을 차지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선비로서 으뜸 자리를 차지했으니 참으로 귀한 존재로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상으로 내렸다. 이윽고 황제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대전(大殿) 앞에 불러 모은 뒤 시를 짓게 했다. 그런데 이때 문득 한 쌍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최치원이 지은 시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최치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경은 어떤 시를 지었기에 하늘에서 그 시를 가져간 거요?”

황제는 최치원에게 방금 지은 시를 읊어 보게 했다. 최치원이 시를 읊자 황제가 찬탄했다.

“이렇게 지었으니 하늘이 가져갈밖에!”

마침내 최치원을 문신후에 봉했다.

몇 년 뒤 황소(黃巢)*가 3만 군사를 모아 ㉠지방의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조정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토벌에 나섰지만 이길 수 없었다. 마침내 황제가 최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다. 최치원은 맞서 싸우지 않고 적진에 격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이었는데 반란군이 모두 투항했다. 이에 최치원은 반란군의 두목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영지(領地)를 더 하사하는 한편 많은 황금을 내리니, 황제의 총애가 비할 데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모함하며 헐뜯는 말을 했다.

“최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만 못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황제가 진노하여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주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최치원은 예전에 노파에게서 받았던, 간장에 적신 숨을 밤마다 꺼내 빨아 먹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황제는 한 달 뒤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사자(使者)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최치원!”하고 부르자, 최치원은 그의 의도를 짐작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자는 돌아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 그러다 요행으로 높은 벼슬을 얻고는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더니만 지금은 도리어 그제 제앙이 돼서 굶어 죽게 생겼군.”

이때 마침 베트남 사신이 공물(貢物)을 바치러 당나라에 오다가 최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홀연 섬 위에 한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베트남 사신이 배를 멈추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 선비에게 시 한 수를 지어달라고 청하자 선비가 시를 지어 주었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에 이르러 황제에게 그 시를 바쳤다. 황제가 시를 보고 말했다.

“누가 지은 시인가?”

사신이 대답했다.

“제가 남쪽 바다의 섬을 지나는데, 어떤 선비가 승려들과 함

께 앉아 책을 읽고 있고 선녀 수십 명이 그 곁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비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 주고 이렇게 말했다.
“시에 담긴 뜻으로 보건대 최치원이 지은 듯하다만,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혼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이에 다시 사자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또 “최치원!”하고 부르자 최치원이 목청을 높여 말했다.
“너는 뭐 하는 놈이기에 건방지게 매번 내 이름을 부르는 게냐?”

그렇게 말하고는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몹시 놀라 말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이로다!”

황제가 다시 사자에게 명령했다.
“최치원을 불러들여라.”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경은 여러 달이나 밖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던고?”

황제가 또 물었다.
“하늘 아래 황제의 땅 아닌 곳이 없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황제의 신하 아닌 이가 없다.”는 말이 있지. 이 말대로라면, 경이 비록 신라 사람이긴 하나 신라 또한 나의 땅이요, 신라의 왕 또한 나의 신하다. 그렇건만 경이 나의 사자를 꾸짖은 이유는 무엇인가?”

㉠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일(一)자를 굿더니 펄쩍 뛰어올라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도 폐하의 땅입니까?”

황제가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최치원이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소인배들의 모함하는 말을 듣고 훌륭한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황소: 중국 당나라 말기의 군웅 가운데 한 사람. 한때 당나라의 수도를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라 일컬음.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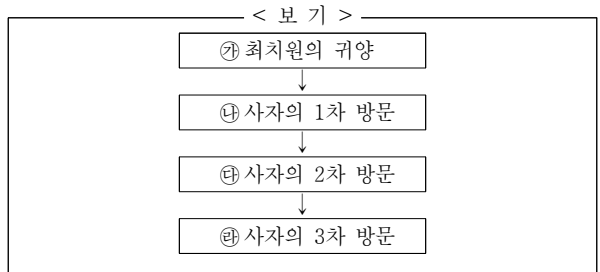
< 보 기 >

「최고운전」은 중화사상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황포에 맞서는 방식을 통해 민족적 우월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영웅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무용(武勇)을 부각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리 문재(文才)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당나라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토황소격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극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 빈공과: 중국 당나라 때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

- ① 황제가 의자에서 내려와 최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것은 민족적 우월성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베트남 사신이 최치원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는 것은 주변국들이 중화사상에 회의를 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한 쌍의 용이 최치원이 지은 시를 가지고 승천하는 것은 주인공의 문제를 부각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여러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것은 부당한 황포로 볼 수 있겠군.

35. 윗글을 읽고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황제는 ㉠를 통해 최치원을 귀양지에서 죽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 ② 황제는 최치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와 ㉢를 지시했다.
- ③ 사자는 ㉡와 ㉢의 결과를 보고할 때 모두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최치원은 ㉡와 달리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거짓으로 꾸며 사자에게 대응했다.
- ⑤ 황제는 최치원을 낙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를 지시했다.

36. ㉠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죽지세(破竹之勢)
- ② 내외의환(內憂外患)
- ③ 좌충우돌(左衝右突)
- ④ 난형난제(難兄難弟)
-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3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의 질책을 피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다.
- ② 천상계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이 미래에 황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④ 신라의 국력이 당나라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황제가 내세우는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